



특집 II

# 동남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파견 결과 보고

박 병 일 / 국제과장

## I. 개 요

### 1. 목 적

- 인도차이나지역 전력사업 현황 및 메콩강 유역 전원개발사업 정보수집
- 미얀마, 캄보디아 전력청 방문 및 국제입찰에 관한 정보수집  
(각종 전기관련 규격 및 구매방법 등)
- 수출상담회를 통한 인도차이나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 '98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홍보

### 2. 파견 개요

- 명 칭 : 동남아 전기공업 수출촉진단
- 파견지역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3개국
- 파견기간 : '97. 6. 24 ~ 7. 4(11일간)
-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생 산 품 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이 사	최희소	-
	과 장	박병일	-
한국 전력 공사	부 장	허엽	-
태 형 (주)	대 표 이 사	임진수	개폐기
자연과학산업(주)	대 표 이 사	최완순	정수처리제, 실험실기구
창 원 기 업 (주)	대 표 이 사	유인수	폴리에틸렌 지중전선관
영 풍 산 업 (주)	이 사	윤태현	무정전전원장치
동방전기공업(주)	전 무 이 사	양태권	변압기, 개폐기
광 명 기 전 (주)	상 무 이 사	김원술	차단기, 수배전반
한양전기공업(주)	전 무 이 사	박광춘	변압기, 리액터
	부 장	한용수	
(주) 대 명 금 속	차 장	김상배	동부스바, 동파이프등

## II. 주요 활동

### 1.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전력공사 방문상담

#### 가. 태국 전력공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 ○ 주요 상담내용

- KOEMA 수출 촉진단의 방문 배경 및 목적 설명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소개 및 한국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설명
- EGAT 전력청 소개 및 구매절차 안내
- **우리측** : 국내 전력기자재가 품질면이나 가격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첨단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그외에는 대등하므로 한국산 기자재의 구매를 늘여줄 것을 요청함.
- **EGAT 전력공사측** : 일부 분야는 한국의 전력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계속적으로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한국산 기자재를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 EGAT는 태국의 전력수요에 부응키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력설비를 확충시켜 나아갈 예정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태국 전기제조 업체간의 상호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EGAT 전력공사의 해외자재 조달방식은 전부 OPEN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업체도 조건 및 구매사양이 일치한다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EGAT에서 공고하는 국제입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나. 미얀마 전력공사(Myanmar Electric Power

#### Enterprise-MEPE)

##### ○ 주요 상담내용

- KOEMA 수출 촉진단의 방문 배경 및 목적 설명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소개 및 한국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설명
- MEPE 전력공사 소개 및 국제입찰 방법 설명
- **우리측** : 국내 전력기자재가 품질면이나 가격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첨단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그외에는 대등하므로 한국산 기자재를 적극 구매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내년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전(SIEF '98)에 참관해 줄것을 요청함.

- **MEPE 전력공사측** : 미얀마 전력공사는 한국의 KEPCO와 똑같은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MEPE가 유일한 전력공급 업체임. 최근 한국정부로부터 EDCF 차관을 제공받아 미얀마 전력망 확장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해 주기를 희망함. 전력의 구매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88년 1일 전력생산이 330MW이었으나 '96년에는 1일 660MW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최근에는 프랑스 토탈사와 공동으로 미얀마 해역에서 가스유전을 개발하였으며 '98년부터는 가스터빈 발전소를 준공하여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전력의 일부는 태국에 판매할 예정임. MEPE의 기자재 구입의 기본 방침은 조립공장이 있는 회사이며 가능한 신용구매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해외입찰은 국제입찰 기준에 의해 개방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시험검사는 OIL, PRESURE, INSULATING TEST 등 기본적인 검사항목에 통과하면 됨. 그러나 선적전 MEPE 검사원을 납품공장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검사하고 있음.

- 변압기의 경우 중국의 통하이 회사제품을 사용하였으나, 불량율이 10% 이상으로 고장이 잦아 구매를 중단하였음. 최근에는 태국산 및 일부 한국산을 구매하고 한국산이 품질이 태국산에 비해 월등하나 가격면에서 매우 비싼편임(변압기 연간 구매는 약 2,000대 정도임-150KVA, 200KVA, 315KVA, 500KVA, 1000KVA). 향후 5년 이내에 수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 부족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30여개의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IPP 구매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외국인 회사와 Joint Venture 사업을 늘려나갈 예정임.
  - 일부기자재는 한국산 전력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계속적으로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한국산 기자재를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
  - 미얀마는 SOC의 기본인 전력이 크게 부족하며, 전력설비 확장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소 건립사업에 참여를 바램.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얀마 전기제조 업체간의 상호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 \* 미얀마 전력공사 사장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한국을 3번정도 방문 한 바 있다고 함.
- 미얀마 전력공사 사장은 일본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최근들어 일본과의 교

류는 전혀 없다고 함.

- \* 미얀마에서는 대표이사 사장의 영문표기는 Mananging Director로 사용하고 있음.

#### 다. 캄보디아 전력공사(Electricite De Cambodge -EDC)

##### ○ 주요 상담내용

- KOEMA 수출 촉진단의 방문 배경 및 목적 설명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소개 및 한국전기공업 수출입 동향 설명
  - 캄보디아 전력공사 소개
  - **우리측** : 국내 전력기자재가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첨단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그외에는 대등하므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함.
  - 내년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전에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함.
  - **EDC 전력공사측** : 캄보디아 내에 전기공업 관련 제조공장은 거의 전무함. 캄보디아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ASEAN) 가입을 계기로 SOC 산업 특히 전력산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임.
-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지원을 받아 프놈펜 전력망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한국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경쟁력만 있다면 한국산 기자재를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
- 최근 캄보디아는 메콩강 전원개발 사업 등 각종 SOC 사업으로 전력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이 크게 부족하여 전력설비 확충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발전소 건립을 민자에 의한 BOT 방식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소 건립사업에 참여를 바랍.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캄보디아 간의 상호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EDC의 해외자재 조달은 전부 OPEN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한국업체도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함.

## 2. 수출상담회 개최

국 가	일시 및 장소	상담실적	비 고
태 국	'97. 6. 25 Holiday Inn Crown Plaza	USD 900,000	〈상담업체〉 - KOEMA 수출촉진단 전원 - 태 국 Pentapower Co., Ltd 등 35개사
미 안 마	'97. 6. 28 Seadona Hotel	USD 800,000	〈상담업체〉 - KOEMA 수출촉진단 전원 - 미안마 CALCORN Co., Ltd 등 25개사
캄 보 디 아	'97. 7. 2 캄보디아 전력청 회의실	USD 800,000	〈상담업체〉 - KOEMA 수출촉진단 전원 - 캄보디아 전력청 관계자

### ○ 상담결과 평가

#### 〈태국〉

한국산 전기기자재가 대만, 중국산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격면에서 인도, 중국산에 비해 약 20-30% 정도 비싼편으로 가격조정만 가능하다면 구매를 원하고 있음(인도, 대만, 중국산은 불량품이 자주 발생됨). 대부분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전기기계설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최근 외환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기자재 수입을 희망하고 있음.

#### 〈미안마〉

미안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하여 정부 공업성(Ministry of Industry) 산하공장에서 전력기자재를 생산 납품해오고 있으나, 품질이 매우 낮은 실정임. 또한 전력이 매우 부족하며 한국과 협력하여 합작 생산을 희망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을 일본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가격문제로 인도 및 중국, 태국산을 구매하고 있음. 가격경쟁력만 갖춘다면 인도 차이나 지역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기존 미얀마 전력기자재 생산 설비는 대부분 20-30년 이상된 노후 설비임. 최근 민간투자 공장 설립이 매우 활발하여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얀마의 외환사정 및 환율변동이 심각하여 경제가 매우 불안정함.

〈캄보디아〉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제조업체 생산공장이 전무함. 대부분 외국원조에 의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 차관으로 전력망 보수 및 확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경험지원을 통한 국산전력기자재 수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일본정부는 프놈펜 제3발전소를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일본의 전력기자재가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3. 공장 방문

가. 미얀마 진출 한국전선 제조업체 두풍공장 (BLDG No 82, Myanma Heavy Industries Compound Kaba Aye pagoda Road, Yangon)

○ 주요 상담내용

- '92년도에 진출하여 '94년 11월에 정식으로 법인을 미얀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음. 지금의 공장부지(공장규모 : 2,458S/F)는 미얀마 정부기업인 중공업(MHI)에서 30년 임차를 하였음. 월 평균 임대료는 약 300만원(각종 공과금 포함한 금액임)이며, 종업원은 약 500명임.
-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주로 가전제품에 소요되는 전선류로 대부분이 한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음.

종업원 월평균 임금은 초봉이 15,000원이며, 숙련공은 20,000원 정도임. 종업원 노동질은 매우 양호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음. 미얀마 종업원은 계층간의 상하관계가 철저하며 상급자는 보수를 차별지급해야 종업원 관리가 용이하다고 함. 공장부지 및 인건비는 매우 싸편이나, 사회간접시설(SOC)이 매우 미약하며, 특히 전력사정이 좋지 않음(두풍공장도 매월 2-3 차례 정도 정전이 발생한다고 함).

- 미얀마는 인도, 중국등 5개국 국가가 연계되어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로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나,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불충분하여 현지공장 설립에는 우선적으로 전력사정을 고려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나. 미얀마 중공업 제 1공장

○ 방문 상담 주요 내용

- 미얀마 중공업 공장은 공업성 산하 국영기업으로 6개 대단위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1공장은 일본기업과 기술을 제휴하여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National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 제 2공장은 체크슬로바키아와 기술을 제휴하여 50HP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생산 내수판매를 하고 있음.
- 제 3공장은 일본의 구보타 전기와 기술을 제휴하여 펌프, 가정용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제 4공장은 일본의 마쯔다와 기술을 제휴하여 승용차용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 5공장은 공작기계, 제 6공장은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음.

— 제 1공장의 종업원은 1,950명이며, 1995년부터 개인회사와 JOINT VENTURE가 가능토록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환영하고 있음(위탁가공 및 100%까지의 투자도 가능함).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노후하여 합작투자시에는 기계설비를 새로 투자해야 함. 합작진출시에는 3년간 면세를 해주며, 기계설비 수입시는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3년후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엔 면세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음.

중전기 관련 관세율은 3-5%이며, 외환사정 악화로 인하여 정부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Ⅲ. 종합평가

○ 동남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력설비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중전기의 잠재력이 있는 수출시장으로, 금번 수출촉진단 파견은 매우 시기 적절하였으며, 현지 전기공업 제조업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한 무역상담(상담실적: 250만불)은 동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됨.

\* 금번, 파견 업체중 영풍산업(주)는 미얀마의 현지 중전업체와의 수출 상담회를 통하여 설비 투자에 확신을 갖게되어 금년도에 전력시스템 기자재 생산기지를 단독투자 설립예정임. 동방전기(주)는 그동안 교류하던 현지업체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수출을 크게 늘려가기로 합의하는 등 미얀마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의사를 보였음.

○ 동남아 지역의 중전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으며, 대부분 중전기 제조업체는 중국계인 화교가 장악하고 있음. 또한 동남아 국가들은 2차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및 일본에 식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로 감정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배타적이거나, 대부분 국민들은 유럽 및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최근 개방 경제정책으로 매우 역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계속 성장, 발전할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우리의 중전기 수출시장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계속적인 관심 대상국가들임.

○ 우리나라는 중전기 수출·입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서구 선진국 지향 일변도인점을 고려하여 수출입 다변화를 위하여는 신흥지역인 인도차이나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종 경험을 통하여 이지역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동 파견기간중 우리나라의 시험 설비현황, 생산설비 등을 홍보하였으며 내년도에 개최되는 서울국제중중전기기전에 참가 및 참관을 요청하였음.

태국전력공사에서 우리나라 중전기 제품 수출시 한국전기연구소의 시험 성적서가 사용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받아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EGAT는 일본 중전기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함).

○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는 한국 제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구매자는 일본산 및 유럽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저가품으로는 인도, 태국산을 선호하고 있음.

금번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품목별 종합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감이 있음.

- 방문 3개국의 전력청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한 것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나, 우리업체만으로 시장개척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음. 정부차원에서 경험 및 대외협력기금(EDCF)을 통한 지원책이 필요함.
- 아국산 제품은 미국 및 일본, 유럽 다음으로 품질 및 기술수준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AS 또는 부품의 원활한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인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현지 국가별 AS NETWORK 및 홍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는 전력설비가 매우 노후화 되어 있고 전력손실율이 매우 커 전력기자재 교체가 시급하나, 동남아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교체가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고려 다양한 지원과 협력으로 현지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동남아 전력기자재 대부분은 정부기관인 전력공사에서 구매하는 점을 고려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및 우리 제품의 홍보성을 알리기

위하여 구매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IV. 향후 조치계획

- 동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는 확고한 AS망 구축을 마련하여 신속한 AS와 현지 언론 및 광고 매체를 통한 한국상품의 이미지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현지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업체와의 무역 상담회를 년 1회 정도를 주선하며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각종 국제 세미나 개최와 아울러 중전기 관련 각종 전시회에 출품 또는 참관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임.
- 동남아 전력회사에 기자재납품과 현지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동남아 전력회사의 기술분야 및 해외구매담당 임·직원을 초청하며 우리 업체의 기자재 생산과정, 성능시험과 품질검사과정 등을 직접 보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미얀마는 우리 중전업체의 진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지전문가 및 미얀마 상무관을 초청하여 투자진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전기산업 동향

### 1. 태국 전기산업 동향

#### 가. 전기사업 추진현황

- 태국의 태국 발전공사(EGAT), 수도권 배전공

사(MEA), 지방배전공사(PEA) 3개가 있고 전기사업자 이외의 관련조직으로는 태국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환경성(DEA), 장기 전력수요예상, 종합적 설비계획을 조정하는 수요예정작업부회(LFWG) 등이 있음.

○ EGAT(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 '65. 5 당시의 안히 발전공사(YEA), 동북 발전공사(NEEA), 시탄발전공사(LA)를 합병했으며 현재는 총리부의 관할에 있는 국영 기업이며 태국의 발송전을 담당하고 MEA와 PEA에 전력을 도매·공급하는 이외에 일부 대량 공업 수용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MEA(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PEA(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 MEA는 방콕 및 방콕에 인접하는 2개현에 배전사업을 하고 있는 PEA는 MEA의 전력 공급지역 이외의 모든 현에 배전을 행하는 한편, 촌락단위의 지방전화사업도 하고 있음.

– MEA와 PEA는 EGAT와 다름없는 국영기업이지만 관할은 내무성이며 더구나 MEA 관내의 배전용변전소는 전부 MEA의 소유이지만 PEA는 거의 EGAT가 소유하고 있음.

○ 태국에서는 산업 자가발전이 있는데 그 설비용량은 '91년 현재 106.4만kW이고 동년의 태국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가 발전의 대부분은 정전시의 예비전원임.

#### 나. 전력수급

##### 1) 전력공급

- '91년 전기사업자의 총 발전전력량은 502억 kWh(tnfor 9.1%, rlfur 64.3%, 가스터빈 16.5%, 콘바인드사이클 10.0%, 기타 0.1%)이며 그 가운데 EGAT의 '91년 발전전력량은 492억 kWh로 총 발전전력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전전력량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 년평균 신장율은 13.1%로 '90년 발전전력량은 전년대비 18.1%로 크게 증가 하였음.

○ '91년 국내전력소비량은 총 발전전력량 502억 kWh에 실질수입전력량 5억kWh를 더하고 소내소비분 19억kWh 및 송배전로스 54억kWh를 공제한 434억kWh임.

##### 2) 전력수요

○ '91년의 전력소비량은 134억Kwh로 전년대비 13.2% 증가추세이며 '82-'91년의 전력소비량은 주택, 상업, 공업의 주요 수요를 보면 산업용은 년평균 15.4%로 크게 증가하였고, 공업은 11.6%, 주택용은 10.8% 증가를 보임.

○ 지역별로 보면 태국 전체의 전력수요의 447%가 MEA의 공급지역인 수도권 및 인접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82-'92년 지방신장율은 수도권의 2.41배인데 반해 2.74배에서 4.04배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북부에서 4.04배, 중부 3.76배로 신장율이 큰데 이는 6차 국가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공업화에 수반하는 지방공장등의 건설에 의한 산업용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3) 수요전망

- '92년 EGAT의 최대전력량은 8,876MW인데 '92년-2006년까지 수요예측을 보면 수요예측에 있어서 GDP의 성장율은 '92-'96년도가 년평균 8.2% '97년-2001년도가 7.47%, 2002년-2006년까지 6.26%을 각각 전망하고 있음.
- 최대전력량은 '92-'96년도가 년평균 10.2%, '97-2001년도가 년평균 7.76%, 2002-2006년도가 년평균 6.07%의 신장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91년 최대전력 804.5만Kw에서 '96년 1,308만Kw 2001년 1,900만Kw, 2006년



2,552만Kw를 전망하고 있음.

- 발전전력량은 '92-'96년도가 10.66%, '97-2001년이 8.18%, 2002-2006년도가 6.67%의 신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 송배전 설비

- 송배전 대부분의 가공선이며 그 기능에 의해 기간계통과 송전계통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기간계통은 각 지역과 주요발전소를 연결하는 계통으로 500KV, 230KV의 송전압이 사용되고 있는데 북부태국 매모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묶는 1회선 500KV 송전선, 시나칼린 화력발전소, 카오뎀수력발전소와 수도권을 묶는 230KV 송전선등이 있음.
- 기간 송전선 이외의 송전선은 각 지역간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인데 115KV, 69KV의 전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접국과 연계하는 송전선으로는 라오스와 묶는 115KV, 송전선, 말레이시아와 묶는 132KV 송전선 등이 있음.
-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MEA와 PEA로 다소 다르나 MEA는 배전용 변전소를 갖고 있고 EGAT는 115KV, 69KV의 송전선 보다 수전한 전력을 강압하고 24KV와 12KV의 고압배전선 및 380/22V의 저압배전선으로 수요가에 공급하고 있음.
- 한편 PEA는 방콕주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전용 변전소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배전선 퍼더이하를 소유하고 있음. 33KV, 22KV의 고압배전선(3상 3선식) 및 380/220V의 저압배전선으로 수요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라. 전원개발 계획

- 2006년까지 천연가스 및 석유에 의한 발전전

력량은 국내산 천연가스의 공급제한 및 연료다양화 정책에 의해 각각 26%, 11%로 감소할 전망이며 갈탄 및 수입탄에 의한 발전전력량의 비율은 각각 22%, 3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00년에 1호기가 영업운전 개시할 예정이며 석탄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입될 전망이고 또한 연료 및 전원의 다양화 관점에서 2006년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운전개시할 예정임.

#### 마. 민간발전 사업

-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태국정부는 국영전력회사를 민영화하고 전력산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부문의 산업용 열병합설비 건설이 허용되고 있으며, 국영전력회사는 민자발전을 개발하기 위해 제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고, '94년 말 국영전력회사인 EGAT는 2개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민간부문에 제의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들 사업은 Lampang성 Mae Kham 지역에 건설될 1,400MW급 석탄발전소와 Ratchaburi지역에 건설될 2,800MW급 가스발전소임.
- 태국정부는 '91년 전력사업의 민영화계획을 발표하고 12개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상기 2개 사업은 2000년까지 10GW의 신규설비와 2010년까지 20GW의 신규설비를 확보한다는 EGAT의 야심찬 전원개발계획의 일부인데, 이들 신규설비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 그 다음 단계인 EGAT의 민영화 계획은 보다

보수적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태국정부의 현재 입장은 민간발전소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임.

## 2. 미얀마 전기산업 동향

### 가. 전력사업

- 미얀마의 전기사업은 영국통치시대에 철도경영을 담당했던 AngloBurma사가 랑군시내에서 전력공급을 시작함. 그 후, 각지에서 전기 사업자가 나타나 그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102개사나 됨.
- 세계대전후, 파괴된 전력설비의 복구와 새로운 전화추진을 위해 '47년에 공업부안에 전기국(Electricity Department)이 설치되었고 다음 해인 '48년(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해)에는 전기공급규정(Electricity Supply Act)이 성립되었음.
- '51년 10월 버마 전기청(Electricity Supply Board)이 설립되어, Rangoon Electricity Tramway의 인수를 비롯해 각지에서 전기사업자의 국유화가 실시되었고, 전기사업 국유화는 계속 추진되어 '72년에는 국내유일의 전기사업자로서 버마전력공사(EPC: Electric Power Corporation)가 편성되었다.
- EPC는 '85년 4월에 신설된 에너지부 관할하에 발전에서 배전까지 일괄적으로 전기사업을 경영해 왔으며 그 후, '88년 9월의 정변이후 EPC는 MEPE(미얀마 전력공사)로 명칭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고 MEPE는 EPC의 기능을 전부 인수하여 에너지부의 관할하에 발전에서 배전까지의 모든 전기사업을 전국적으로 전

개하고 있음.

### 나. 전력수급

#### 1) 수급균형

- 정변이 일어난 1988년의 수급균형을 보면, 전력공사의 총 발전량은 22억 2,000만kWh로, 이중 소내용 8,100만kWh를 빼고 자가발전으로부터의 구입전력량인 6,000만kWh를 더한 4,500만kW가 국내공급전력량이 됨.
- 판매전력량은 국내공급량에서 송배전손실량인 7억 1,900만kWh를 뺀 14억 2,600만kWh로서 가정용이 4억 8,210만kWh(전체의 33.8%), 상공업용이 8억 8,010만kWh(61.7%) 및 공공시설용이 6,380만kWh(4.5%)이었음.
- 이 행의 최대전력은 36.9만kW로 부하율은 66.6%였고, 발전전력량과 판매전력량은 정변이 일어나 경제활동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87년)보다 떨어졌지만 송배전 손실량과 최대전력은 오히려 증가하여 송배전손실율이 최고치인 33.52%를 기록하면서 부하율도 66.36%로 떨어짐. 마침 '85년부터 손실율과 부하율이 서서히 개선되어 '87년에는 손실율이 29.27%, 부하율이 71.04%를 기록했음.
- '88년 이후의 상황은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정변이후의 에너지 부족으로 발전이 불가능해 연일 몇 시간씩 정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짐.

#### 2) 발전전력량

- 미얀마 총 발전전력량은 1980년의 12억 2,800만kWh에서 '87년의 23억 1,500만kWh로 연평균 9.6%로 증가했지만 정변이 일어난 '88년부터 2년간은 마이너스성장(연율  $\Delta 2.2\%$ )이

계속되어 '89년에는 22억 1,300만kWh까지 떨어졌고 그 후, 일시적이지만 경제상황이 안정되었고 가스터빈과 디젤발전소가 증설되어 '90년에는 발전량이 24억 7,200만kWh로 전년비 11.7%를 기록했음.

- 각 전월별 발전량을 보면 수력은 설비증감과 함께 발전량을 늘려 '80년의 7억 2,000만kWh에서 '90년의 12억 4,000만kWh로 연율 6.0% 증가되었으며 수력의 설비이용율은 기후상황과 설비증가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40-60%대를 유지하고 있음.
- 화력은 '80년의 5억 800만kWh에서 '87년의 12억 9,100만kWh로 7년 동안 평균 14.9% 증가했으나 '88년 이후 3년간은 연평균 증가율이  $\Delta 0.9\%$ 로 '90년 발전량은 12억 3,200만kWh로 '87년보다 떨어졌음.
- 기력과 디젤발전소의 설비이용율은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88년의 이용율도 기력 4.8%, 디젤 2.4%로 계속 침체되고 있고 이에 비해 가스터빈은 호조세를 보여 '88년에는 46.4%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단 '89년 이후 화력전체의 이용율이 떨어져 가스터빈 이용율도 낮아지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보통은 수력이 호조세를 보이고 화력이 부진했기 때문에 발전량 중에서 차지하는 수화력 비율도 '85년부터 '88년까지는 수력 주종 양상을 보였고, '89년부터는 다시 화력 주종으로 역전되었음.

### 3) 판매전력량

- 전력공사의 총판매전력량은 1980년의 8억 7,400만kWh에서 연평균 6.3% 늘어나 '87년에는 15억 8,000만kWh에 달했음. 그러나 '88

년에는 14억 2,600만kWh로 전년비  $\Delta 9.7\%$ 로 떨어졌음.

- 가정용은 '88년에도 증가해 '80년의 2억 4,260만에서 4억 8,210만kWh로 8년동안 연평균 9.3% 증가하였음. 이 기간중, 상공업용도 연평균 8.0% 증가했으나 '88년에는 전년비  $\Delta 3.9\%$ 로 정변의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줌.

## 다. 전력설비

### 1) 발전설비

- 1990년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22.5만kW로, 이중 77%에 해당하는 94.5만kW가 전력공사 소유이고 나머지(23%) 28만kW가 비료공장 등에 설치된 자가발전(기력발전소) 설비임. 또, 이해의 전력공사의 전원구성은 수력 27.3%(25.8만kW), 기력 9.7%(9.2만kW), 가스터빈 43.7%(41.3만kW), 디젤 19.3%(18.2만kW)로 '80년에 비해 수력이 줄고 화력이 늘고 있는 상황임. '80년의 구성비는 수력 33.7%, 기력 14.7%, 가스터빈 35.3%, 디젤 16.3%임.
- 수력발전소는 일본의 무상협력으로 완성한 Balu-Chang 제2발전소(합계 16.8만kW)를 비롯해 Sedawgyi(2.9만kW, '85년 운전개시) 등 1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1만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임. Balu-Chang 발전소 이외는 모두 '80년대에 완성된 것으로서 대부분이 다목적댐에 발전설비를 병설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수자원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댐 건설에 관해 발전설비 병설을 의무화했기 때문임.
- 기력발전소는 수도 랭군주변에 Ahlone(3만kW, 50-70년 운전개시), Ywama(3만kW,

55년 운전개시), Taton(2만kW, '80-'86년 운전개시) 및 Martaban(1.2만kW '80-'85년 운전 개시)의 4개소가 있는데 이들 모두 기별용량 1만kW 이하의 소규모설비로서 노후화와 부품부족 등으로 운전중지된 발전소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연료부족까지 겹쳐 전술한 바와 같이 기력전체의 이용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 천연가스의 생산증가와 함께 가스터빈이 각지에서 운전을 시작해 현재 Prome(합계 10.3만kW, '80-'84년 운전개시), Mann(7.6만kW, '80년 운전개시), Chank(6.1만kW, '74년 운전개시), Tkaketa(6만kW, '90년 운전개시) 등 전국에 7개의 발전소가 있고, Mann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가 '80년대에 완성된 것임.

## 2) 송배전 설비

- 현재 미얀마에는 230kV 기간계통외에 132kV 및 66kV 계통이 있고 최북부의 카틴주, 서부의틴 및 라킨주, 중남부의 카인주를 제외한 각지에 송전선이 뻗어 있음.
- 230kV 기간계통은 수도 랭군과 동부와 중서부의 주요발전소를 연결해 동부에서는 Balu-chaung 수력발전소와 중서부에서는 Prome, Mann 등의 가스터빈 발전소와 접속하고 있음.
- 기간계통을 보완할 132kV 계통은 중부에서 북부로 이어져 만다레 지방의 Thazi를 중심으로 Balu-Channg, Sedawgyi, kinda, Chank 발전소와 Taunggyi, Toungoo 등의 도시로 이어지고 있음. 또, 남부에서는 Martaban과 Thaton, Moulmein 두 기력발전소를 연결하는 132kV 고압계통이 있고, 66kV 계통은 바고비

장의 Prome 발전소에서 Myanaung 발전소를 경유하여 Myanaung 발전소를 경유하여 Myaungmaya까지 에어와 디지방을 남하하고 있음. 또한 '91년 3월말 각각 회선의 총 길이는 230kV ... 1,049km, 132kV ... 1,220km, 66kV ... 79km임.

- 배전전압은 현재 33kV, 11kV, 6.6kV, 3.3kV 및 400/230V가 사용되고 있으며 배전방식은 단상 2선식, 3상4선식이 채용되어 있고 또, 수도랭군의 배전계통은 33kV, 6.6kV 및 400/230V로 구성되어 노후화된 지중선이 상당히 있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91년 3월말의 각 전압별 회선의 총 길이는 33kV ... 2,483km(내지중선은 159km), 11kV ... 4,963km(내지중선 13km), 6.6kV ... 906km(내지중선 447km), 3.3kV ... 209km 임.

## 라. 전원개발계획

### 1) 발전설비

- 세계은행이 1989년에 작성한 『장기전력수요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수요는 연평균 8-11% 증가하고 최대전력은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따라서 '99년에는 공급전력량을 63억 6,900만 kWh 확보할 필요가 있고, 최대전력이 108만 kWh로 늘어나므로 현재와 같은 정도의 예비율(약 30%)을 상정할 경우 '99년에는 총 설비용량은 160만kW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수요상정』을 토대로 전원개발계획을 구상해보면 '89년부터 '99년까지 발전소를 약 85만kW를 개발해야 됨. 즉, '90년에 화력발전소

- 가 모두 19.3만kW 운전되고 있으므로 '91년부터 9년동안 66만kW를 개발해야 되는 셈임.
- 현재, 전원개발의 후보로 올라있는 프로젝트로서는 수력으로 Balu-Chaung 제1발전소의 증설(1.4만kW), Zawgyi(1.5만kW), A뎀(0.9만kW), Paung-Laung(28만kW) 및 Bilin(24만kW)의 신설 계획이 있고 화력으로는 Chauk의 증설(1.8만kW)과 Mann, Thaketa 두 발전소의 Comined cycle화(각 4.5kW, 2.7만kW)등이 있음. '92년 현재 Balu-Chaung 제1수력발전소에서 증설공사가 진행중이고, Paung-Laung 수력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와 세부설계가 끝난 상황임.
  - 또한 최근 전력부족이 염려되는 태국과 수자원을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88년 7월 랭군에서 정부간 협정이 체결된 이후 각지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음. 조사에는 미얀마 전력공사를 비롯해 태국의 에너지성(NEA), 태국발전공사(EGAT), 일본전원개발(주)등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두번의 회의('88년 11월 및 '90년 8월)가 개최되어 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이 태국국경을 따라 8군데의 프로젝트가 있음.

〈Nam Mae Sai 프로젝트〉

- 동부(태국에서 보면 최북단의 국경부근)의 삼주를 흐르는 Mae Sai강(매콩강의 지류)에 높이 82m, 댐길이 534m의 사력댐과 1.25만kW의 발전소(프란시스형 터빈 2기)를 건설하여 연간 7,000kWh를 발전할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91년에 일본전원개발(주)가 타당성 조사를 마친 안전으로서 건설비는 7,455만US\$로 예측하고 있음.

〈Kiong Kra 프로젝트〉

- '91년에 EGAT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안전으로 삼마남부의 타닝타이 지방에 높이 65m, 길이 528m의 사력댐과 13만kW의 발전소(프란시스형 터빈2기)를 건설하여 연간 2억 3,800만kWh를 발전할 계획임. 건설비는 1억 1,320만US\$로 예상하고 있음.

〈Upper Salawin 프로젝트〉

- Thanlwin강과 Moei강 합류점에서 Moei강 연안으로 약 76kW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높이 166m, 길이 570m의 중력댐(총 저수용량 210억m<sup>3</sup>)과 454만kW의 발전소(프란시스형터빈 10기)를 건설하여 연간 292억 7,1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 건설비는 약 30억US\$로 예정하고 있음('92년에 일본전원개발(주)가 사전조사를 실시).

〈Lower Salawin 프로젝트〉

- Upper Salawin의 하류 16km 지점에 8억 5,800만US\$를 들여 높이 49m, 길이 379m의 중력댐과 79.2만kW의 발전소(카프란형터빈 10기)를 건설하여 연간 54억 2,200만kWh를 발전할 계획임('92년에 일본전원개발(주)가 사전조사를 실시)

〈Nam Moei 제1수력 프로젝트〉

- 카인주를 흐르는 Moei강(태국의 Tak현에서 상류로 약 30km 지점)에 높이 95m, 길이 780m의 사력댐(총 저수용량 29.4억m<sup>3</sup>)과 11만kW의 발전소(프란시스형 터빈2기)를 건설하여, 연간 2억 4,400만kWh를 발전할 계획이다. 건설비는 다음에서 설명할 Nam Moei 제2 및 제3수력 프로젝트와 합쳐 6억 9,800만US\$로 예상됨('92년에 일본전원 개발(주)가 사전조사를 실시).

〈Nam Moei 제2 및 제3수력 프로젝트〉

- Nam Moei 제1발전소 상류에 제2발전소(높이 55m, 길이 365m의 사력댐과 카프란형 터빈 3기, 합계 23.1만kW의 발전소)를 그위 상류에 제3발전소(높이 65m 길이 330m의 중력댐과 카프란형 터빈 4기, 합계 28.8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각각 연간 5억 2,300만kWh, 6억 3,1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92년에 일본전원개발(주)가 사전조사를 실시) (Mae Kok 프로젝트)
- '92년 3월에 일본전원개발(주)가 사전조사를 안전으로서 삼수를 흐르는 Kok강(상기 Nam Maesai 프로젝트의 근류)에 3억 7,500만 US\$를 들여 높이 140m, 길이 425m의 중력댐(총 저수용량 46.5억m<sup>3</sup>)과 프란시스형터빈 2기, 합계 29.4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6억 3,7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임. 또한,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이 용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임. 이 프로젝트가 실시될 경우 미얀마는 외화획득원을 얻고 태국은 낮은 비용의 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두 나라에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가 될 것임.

### 3. 캄보디아 전기산업 동향

#### 가. 전기사업 추진현황

- 내전이전(1970년 이전)의 캄보디아는 Electricite' de Cambodge(EDC)가 발전에서 배전까지 전국적인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내전(1970-1975년의 5년간), 폴포트 정권하의 이른바 공포정치(1975-1978년말의 약 4년간), 베트남군 침공으로 개시된 캄보디아전쟁(1978년말-1991년의 약 13년간)등으로 전국적 전기사업

체제는 붕괴되었음.

- 현재는 지역별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수도에서 발전부터 배전까지의 업무를 하는 프놈펜 전력공사(EDP : Electricite'du Phnom Pehn) 이외는 전기사업자라고 할 주체는 없음. 즉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마을·촌 등의 공동체가 소규모발전소로 주위에 배전하고 있음.
- EDP는 공업 관할하로 전기요금이 저가적으로 억제되는 등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근년 들어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을 계기로 자주경영관리노선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음. 또 공업도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을 허락하는 등 EDP의 민영화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나. 전력수급

##### 1) 발전전력량

- EDP(프놈펜시)의 발전전력량은 1986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11%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2억kWh에 달했음. 그러나 1990년에 구소련의 원조가 축소되어 이에 따른 연료가격이 한번에 2배이상으로 뛰어(인상폭은 디젤유 2.5배, 중유 2.2배가 됨) 계획대로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발전량도 전년비 -8.7%인 1억 8,270만 kWh에 머물렀음. 게다가 1991년에는 구소련의 원조가 완전히 중단되어 연료가격이 또한번 상승하여 전력수요량의 2-3할 정도의 발전밖에 하지 못하였음.

##### 2) 수요예측

- EDP가 1990년에 작성한 프놈펜시의 전력수요 예상에서는 최대전력이 현재의 6만kW에서 연평균 8.5% 증가하여 1994년에는 8.3만kW

가 된다고 예측하고 17% 정도의 예비율을 확보할 경우 '94년에는 발전설비가 10만kW 필요하게 되었음.

- 또 1995년에는 어느정도 전력계통이 정비되기 때문에 최대전력이 한번에 25만kW에까지 확대될 경우를 예상, 총 설비용량도 30만kW로 증설할 계획임. 하지만 현재 공급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예측도 재검토가 요구되고 1990년 EDP가 작성한 수요예측이 나타나 있음.

#### 다. 전력설비

##### 1) 발전설비

- 1990년 캄보디아 총 발전설비용량은 8만 7,600kW로 이중 85%에 상당하는 7만 5,200kW가 수도 프놈펜에 설치되어 있고 발전소는 전부 화력발전소이고 막대한 양의 포장수력이 있지만 수력발전소는 없음.
- 현재 프놈펜에는 소규모 화력발전소(1.8만 kW) 하나와 디젤 발전기 4기가 있지만 구식 설비가 많아 가장 최신의 것이라도 1984년에 설치된 1만 7,500kW 설비뿐이며, 또 보수부품과 연료공급부족으로 가동율이 극히 낮아 프놈펜시의 수요(최대전력 약 6만kW)에 대하여 공급가능출력은 약 5만kW로 공급력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또 1991년 상황은 전술한 이유로 인해 연료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1일 6시간 이상의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있고 연료수송이 곤란한 지방 도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1일 2시간밖에 전력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음. 더구나 주요 호텔이나 기업에서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용

호텔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우는 전등용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 2) 송배전 설비

- 현재 캄보디아에는 송배전계통이라고 불릴만한 것은 없고 전력공급은 주로 15kV 고압배전선이 사용되고 있음. 더구나 거둬들인 분쟁으로 파괴된 지역이 많고 수도 프놈펜과 몇몇 주요 도시밖에는 배전망이 없음. 공급전압은 15kV 외에 120V, 208V 및 380V가 있고 공급 방식은 1상2선식과 단상 4선식이 사용되고 있음.
- 또 주파수는 50Hz로, 참고로 1972년 배전선의 고장거리리는 15kV는 318km(170km는 지중선), 저압배전선 합계는 659km였으며 분쟁상태가 20년이상 계속된 것을 미루어 보면 현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다. 전원개발설비

##### 1) 발전설비

- 1990년 EDP가 작성한 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이후 4년간 프놈펜시 디젤발전소를 4만kW 증설하여 1994년에는 총 설비용량을 10만 5,200kW까지 끌어 올리고 또 1995년에는 송전망 정비가 이루어져 Kompong Som, Takeo 등 주요 도시와의 사이에 전력계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프놈펜시 북방과 콤포스프주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때문에 계통내 총 설비용량은 14만 3,200kW이다.
- 수력발전소에 관해서는 프놈펜 북방에서 Stung-Chinit 발전소(합계 1만kW)가, 콤포스주에서 Prek Thout 발전소(합계 1.8만kW) 1969년에 메콩 위원회의 자금원조로 건설착수했지만 '70년에 간척율 20%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 발전소가 각각 1995년 운전개시를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었음.

- 그리고 캄보트주에서 Kamchay 수력계획 Kompot시 부근에 Kamchay댐과 6.5만kW, 5만kW 및 2만kW급 3개 발전소를 건설, 발생 전력을 캄보디아 남부와 프놈펜에 공급할 예정이다.
- 또 DEP 공급지역 이외에서도 수력개발계획이 있어 태국과 공동으로 북서부의 Battambang에 댐, 태국의 Trat지구에 발전소(20만kW)를 건설하고 서부 캄보디아와 동부 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외에 베트남과 공동으로 동북부 라타나기리주에 Ouchum 발전소(1,300kW : 건설비는 양국이 각각 400만US달러씩 부담하며 터빈은 프랑스)를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음.
- 또 1992년 들어 프놈펜 정부는 일본측에 『전력마스터 플랜』 책정에 관한 협력요청,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메콩개발에 관해서는 1993년 2월에 메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역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및 태국과의 사이에서 일련의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메콩개발은 차후 캄보디아 평화의 행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민족화해의 진전이 주목되고 있음).

## 2) 송전설비

- EDP의 계획으로 1995년까지는 프놈펜과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2개 수력발전소(Stung-Chinit 및 Prek Thuot)를 각각 115kV로 연결하여 프놈펜에서 Takeo를 경유 Kompong Som까지 약 200km의 115kV 송전선을 건설할 예정임.
- 북서부에서는 태국의 Trat지구에서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발전소의 Battambang등 서부 캄보디아를 연결할 계획임.

